

# “젊은 친구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춤출 수 있습니다”

## 충남 해미읍성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가보니

“비바 파파(Viva Papa), 파파 프란치스코(Papa Francis).”

17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 들어서자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참가자 6000여 명의 함성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교황이 해미읍성 진남문을 통해 들어서는 모습과 함께 아이들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행사장 좌우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비칠 때마다 참가자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교황이 탄 차량이 행사장 가운데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날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해미읍성에는 이른 오전부터 아시아청년대회 참가자를 비롯해 주교단 70여 명, 그리고 한국 천주교 신자 및 방문 관광객, 주민 등 3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해미읍성 주변에 자리를 잡은 뒤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해미읍성 진남문에 자리하고 있던 최지현(여·27)씨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더욱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미읍성에 있던 일부 신자들은 교황의 카퍼레이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변을 지키기도 했다. 이날 내렸던 비는 행사 시작 3시간 전 거짓말처럼 그쳤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국내 16개 교구 청년들과 아시아 22개국 청년들이 준비한 십자가를 단상에 올려 제대를 완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광주대교구 소속 청년들은 동티모르에서 찾아온 청년들과 함께 갈라타에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선행’(선의)의 메시지가 담긴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어 입당, 시작예식, 본기도, 독서 및 복음, 교황 강론, 사도신경, 보편지향기도, 성찬기도, 영성체 예식, 영성체 후 기도, 감사 인사(강우일 주교), 차기 아시아 청년대회 개최지 선포, 축복 기도 및 축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靑청년 6000여명 함성 열광

## 광주 청년들 ‘선행 십자가’ 만들어

## “은화한 미소 평생 가슴속에...”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이라는 말로 강론을 시작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젊은이’와 ‘아시아’를 강조했다. 그는 시편 구절을 인용해 “오늘 화답송 시편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교황은 청년대회 참석자들을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으로 부르며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들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아시아의 젊은이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귀한 증언, 위대한 증거의 상속자들이다”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실성과 그 승리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폐막미사에 참석한 류지연(여·27·광주 학운동성당)씨는 “지난 10일부터 광주와 대전에서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과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최근에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나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 교황님의 은화한 미소를 평생 가슴 속에 새겨두겠다”고 말했다.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행사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본당별로 1명씩 모두 48명의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에서 광주를 찾았던 청년 참가자 77명이 함께했다.

/충남 해미읍성=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나흘째인 17일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을 찾아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입장하자, 신자와 시민 등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파격 행보...가는 곳마다 구름인파

## 광화문 시복식 100만명 운집

## 아이들 만나면 차 멈춰 축복

격식을 따지지 않기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 곳마다 구름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 순교자 124위의 시복미사를 집전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주변 도로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서울광장에서 시복미사가 치러지는 광화문 바로 앞 제단까지 30여분간 진행된 카퍼레이드였다.

오전 9시 8분께 덮개 없는 흰색 차에 올라탄 교황은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며 양 옆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축복을 전했다.

밤을 새워가며 전국에서 모인 시복식 참가자들은 “비바 파파”라고 외치며 하안수건을 흔들었다.

교황은 간간히 차를 멈춘 뒤 어린이들을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때마다 참석자 중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교황은 이날도 ‘하느님은 빈자와 약자의 편’이란 것을 보여줬다. 교황은 카퍼레이드 종점인 제단을 지나쳐 서울광장으로 방향을 튼 뒤 시복식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400여명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47)씨의 두 손을 맞잡고 위로했다.

이날 시복미사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앞까지 이르는 방호벽 안에는 미리 초청받은 17만명이

새벽부터 꽂 들어섰고, 주변 도로와 찾집 등은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나마 교황을 보려는 신자와 시민들이 몰려 복세동을 이뤘다.

전날인 15일 밤부터 광화문광장 주변을 다녀간 신자와 시민들은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5일에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고자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모두 여덟명 자신이 탄 차를 멈춰 세웠다. 교황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시민 속에서 아이들을 발견하고서였다.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시민에게 환한 미소로 손을 들어보이며 화답하던 교황은 지나가다 아이들이 보이면 차를 멈춰 세우게 한 뒤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다 같이 “비바 파파”(Viva Papa, 교황 만세)를 연호하는 가운데 경기장에 들어서 교황은 차를 타고 경기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건넸고, 이 와중에도 2번 차를 세우게 한 뒤 아기의 이마에 입맞춤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방한 첫날인 지난 14일에도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주교단과 만난 교황은 오후 6시50분경 일정을 마치고 ‘쏘울’에 탑승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서 잠시 내렸다. 자신을 향해 “비바 파파”(Viva Papa, 교황 만세)를 연호하는 시민을 보기 위해서였다. 교황은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손을 꼭 잡아준 뒤에야 차에 올라탔다. /연합뉴스

# 오늘 마지막 미사서 위안부 할머니들 만난다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교황을 직접 만난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교황 방한 관련 브리핑에서 “교황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미사 전에 만날지, 끝내고 만날지 형식은 모르지만 직접 만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천주교 교황방한위원회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위안부 피해자 세 분이 미사에 참석해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교황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이 이날 광화문 시복미사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차를 멈추고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교황은 미리 계산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황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열리면 위로하는 행동을 한다”고 전했다. 교황이 이를 연속 세월호 참사 추모미사에 단 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교황은 누군가 고통받으면 항상 위로하고 참여한다. 하나하나의 제스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롬바르디 신부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가톨릭교회의 순교 역사에 크게 감동받은 것 같았다. 특히 영적으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롬바르디 신부는 또 “교황은 방한 이후 건강 상태와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 Travel 터키일주



**EMOF03 -KE**

편안한 터키 일주9일 동굴 호텔 숙박 + 중간항공 2회

총 상품가격 **3,475,5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stanbul,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콘야, 아피온, 안탈리아, 파묵칼레, 에페소, 이즈미르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중간항공 2회,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100유로 상당 선택관광 포함 (안탈리아 유람선 & 벨리덴스 공연), 온천호텔 숙박, 1일 생수 1병 제공, 수신기 제공, 터키 지도 제공
- 다양한 케밥체험 (황아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와인인 곁들여진 양꼬치 특식, 업그레이드 현지 제공

**EMOF03 -KEX**

알찬 일정 터키 일주9일 업그레이드 호텔 숙박

총 상품가격 **2,574,7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90유로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stanbul, 앙카라,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묵칼레, 에페소, 아이발릭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대항버스로 이동
- 다양한 케밥체험 (황아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고티머 케밥 특식

**AAOF71 -KE**

태국/미얀마/라오스 5일 골든트라이앵글 3개국 + 라오스 1박

총 상품가격 **1,010,800원** ~

원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9/24(수), 10/19(월) 치앙마이, 라오스, 미얀마
-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미얀마 도착비자 포함, 라오스 액주 및 버스, 송태우 탑승 체험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준비금, 문물/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통료, 현지관광임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항공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항공사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항 사항]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0004-1993-6 (홍유구) /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2 41 한나투어 빌딩 지하1층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 고품질 항공(비스/세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전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일 보충보통 22여 1천만원 가입